

# 현 총련 '사라지는 깃발은 없다'

이인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정주영은 물러가라', '현대중공업 민주노조 인정하라', '임금인상 즉각 실시하라', '두발 자유화를 실시하라'.

울산의 남목고개를 넘어서는 5만 현대노동자의 외침은 시 전체가 떠나갈 듯 큰 울림을 뒀다. 1987년 8월 18일 오후. (중략)

이들이 쏟아내는 외침도 한 가지, '노동자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으로 모아졌다. 그 선언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울려 퍼지면서 잠들어 있던 한국 노동자의 혼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중략)

그들의 가슴 속은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 '노동해방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한국경제는(중략) 개발독재를 펼친 정권과 돈을 매개로 이에 결탁한 재벌, 그 사이에서 노동3권을 저당 잡힌 노동자들이 있었다.

현대그룹은 미 균정의 귀속재산 불하, 한국전쟁 복구 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표적인 정경유착으로 고속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 재벌이다. 그러나 권력을 등에 업은 재벌은 정권의 비호와 협조 아래 노동자들에게서 인간의 권리를 앗아갔다. 그러나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새봄은 준비된다.

1974년 9월 '현대조선소 폭동사건', 1980년 5월 현대중공업의 노조 결성 시도, 그리고 1987년 봄물같이 터진 노동조합 결성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현대그룹노조총연합 15년 투쟁사, '사라지는 것밖은 없다' 중에서)

1987년 7~9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들의 천부인권인 노동3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1987년 8월 8일 대한민국 노동운동사 사상 최단 시일에 현대그룹노조 연대조직인 현노협(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 현대계열사 노동조합 중 가장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한 현대엔진 노조 권용목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11개 노동조합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권용목 의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구속, 노조원 연행, 1988년 현대해고자 복직실천협의회 결성, 1990년 1월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결성,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노조 파괴 전문가 제임스 리(이원

섭)에 의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핵심간부들에 대한 식칼 테러,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전면파업과 공권력 투입, 이어지는 골리앗 농성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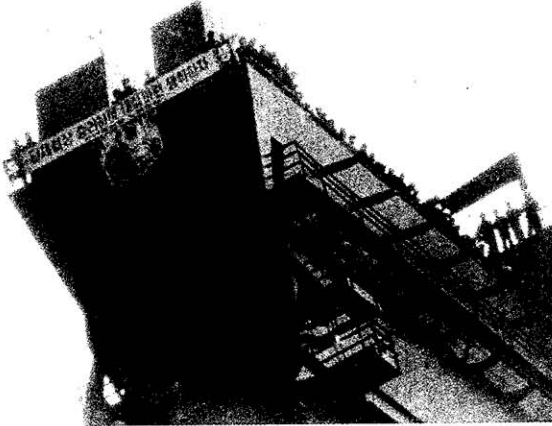
새벽과 한밤중 헬기까지 동원한 정부의 무력진압에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천대와 우리의 비애에 울분을 느끼고 급기야 투신하려는 동지들을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자제시켜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 밑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사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가 유린되고 정부에 의해 이렇게 천대받는 현실에서 골리앗 위에 있는 우리 전원은 죽을 수는 있으나 물러서지 않기로 결의를 모으고 기름과 산소탱크, 가스통을 우리 품에 안기로 하였습니다.(중략)

골리앗 농성자 대표 이갑용

1990년 5월 1일 이갑용(현대중공업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가 조합원 및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1990년 4월 28일 새벽 4시, 파업 중이던 현대중공업에 현대식 장비로 중무장한 수 천 명의 전투경찰이 투입되자 파업 지도부는 120여명의 노조원과 함께 90년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높이 82m의 골리앗크레인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대형 철판을 전기톱으로 끊고 그 곳에서 장기농성에 돌입한다. 13일 동안의 골리앗농성 기간 동안 현대계열사 노동조합들의 연대파업 및 시위가 있었고, 1990년 1월에 결성된 전노협이 5월 1일자로 전국 총파업을 선언하자 전국 각지에서 동조파업이 진행되어 전국에서 51개 노조 9만여 명이 파업을 결행하였다. 이렇게 전국적인 투쟁의 중심이 된 골리앗농성은 5월 10일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51명이 농성을 풀고 연행됨으로써 끝을 맺는다.

지난 2001년 5월 26일 현노협(현대그룹노조협의회)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발전적 해



1990년 폴리앗 농성

산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7년 8월 현노협(현대그룹노동자협의회), 1990년 1월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1998년 4월 14일 현노협(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으로 그 명칭은 변했으나, 지난 15년간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민주노총 건설의 일역을 담당했던 현대그룹노동조합의 연대기구인 '현총련'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발은 없다'는 현총련의

역사를 수많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인터뷰를 통해 구술사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최근 사업회 사료관에 현대그룹노조협의회 청산위원회가 기획하고 김보근, 차미경씨가 집필한 '사라지는 것발은 없다' (현대그룹노조총연합 15년 투쟁사)와 CD로 제작된 현총련 백서가 수집되어 간단히 이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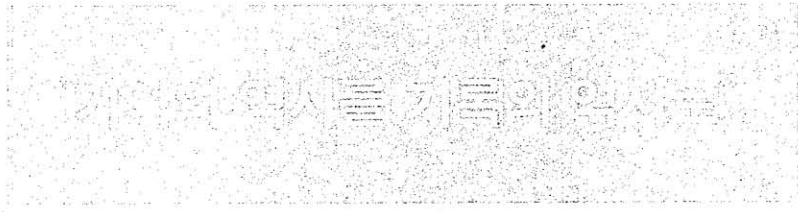
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사라지는 것발은 없다'는 현총련의 15년의 역사를 수많은 노조간부와 조합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술사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한 그룹연대노조의 역사를 구술사 형식으로 제작한 것은 아마 한국의 노동운동사상 처음 시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다른 노동조합의 역사정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기록문화 수준을 한 차원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현총련 백서 - 최초의 CD 백서

또한 CD로 제작된 현총련 백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CD백서로서 뒷날 쓰여질 현총련의 역사정리를 위하여 피와 땀으로 제작된 것이다. 수 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한건 한건 평가하여 그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하고 선별된 자료를 각각 입력하여 스캐닝하고 이를 다시 검수, 수정, 편집, 전산 입력하여 CD로 만들었다. 청산위원회의 소수 인원과 소액의 예산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사에 큰 빛으로 남아 있는 현총련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CD에 담겨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역사적가치가 있는 사적 기록물을 보존, 정리, 디지털화하여 주요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도는 자료관 차원에서조차 극히 최근의 경향임을 생각할 때 이들의 선견지명과 해안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1987년 7~9 노동자 대투쟁 관련 자료 및 1990년 폴리앗농성자료 등이 거의 없다는 점과, 당시의 시대 상황 및 현장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식지 및 선전물 등이 CD백서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다. 추후에 이 CD백서가 계기가 되어 현총련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이 더욱 충실히 수집되어 현총련의 역사정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자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